

동국불교미술인회 전시회

치 사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동국불교미술인회의 열 번째 전시회를 축하하며,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불교는 종교 이상의 의미를 지녔기에 우리의 전통문화에는 불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교문화는 민족문화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는 곧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특히 불교 미술은 부처님 성상을 조각하고 교리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내면서 고유한 예술문화를 창조하였습니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이러한 선대의 정신을 바르게 계승하면서 현시대에 맞는 창 의와 노력을 더하고, 불교미술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사명으로 지난 20년간 한국 불교미술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꾸준히 정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마 음의 등불’을 주제로 삼았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불모의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의 진력에 감사드리며, 양용호 회장님 및 모든 회원들과 함께해 주신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56년 9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